

강남구 성형외과의 입지와 방문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cation of plastic surgery and visiting factors

유정화 (서울대학교 , yjh2001@snu.ac.kr)

본 연구는 “왜 성형외과가 강남구에 밀집분포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강남구 성형외과의 의료공급자의 입지요인과 의료소비자의 방문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양측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강남구 성형외과 개원의와 내원객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대중매체의 기사 검색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남구 성형외과 개원의의 설문은 2003년 1월 12일부터 2003년 4월 1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강남구 전체 206개 개원의 중 약 10%인 21부가 회수되었으며, 강남구 성형외과 내원객에 대한 설문은 2003년 3월 26일부터 2003년 4월 1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모두 114부 회수되었다.

우리나라 성형외과 개원전문의 중 47%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 55%가 강남구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남구 내의 5개 동인 압구정동,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역삼동에 강남구 성형외과의 92.7%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남구 성형외과의 확산시기를 살펴본 결과, 1981년에 논현동에 최초로 개원한 성형외과를 시작으로, 그 이후부터 1998년까지 매년 10개미만의 성형외과가 개원하였으나, 1999년 이후부터는 급증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1999년부터 2003년 4월 26일 현재까지의 신규개원이 148개소로 강남구에 현재 개원중인 전체 성형외과 206개 병원 중 약 3/4이 최근 4년간 개원한 성형외과이다. 즉, 특정 지역, 특정 시기에 강남구에 빠르게 성형외과가 개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남구 성형외과 의료공급자가 개원시 고려하는 입지요인으로는 ‘지역의 인지도’와 ‘지역 이미지’와 같은 지역적 측면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반면, 강남구 성형외과의 의료소비자가 방문시 가장 고려하는 방문요인은 ‘의료진의 경력과 경험’, ‘최신 의료기술과 장비 구축’, ‘의사의 명성’ 순으로 나타나 강남구 성형외과의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가 고려하는 요인간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남구 성형외과를 찾는 내원객의 거주지 분포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지방 등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병원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통합된 관점에서의 경험적인 연구방법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가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양측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의료서비스 시설의 입지에 개선점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